

# 금호아시아나그룹 재건 '한치 앞이 안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매각 불발에 금호고속 차입금 상황 불투명 자금 경색 장기화... 터미널 부지·건물 매각도 쉽지 않아 정부, 아시아나에 2조4천억 지원 결정... 경영 정상화 주력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끝내 무산됨에 따라 호남을 대표했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그룹 재건도 다시 안갯속에서 빠져 버렸다.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아시아나항공 매각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데다,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금호고속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대금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금호산업 지분을 담보로 빌린 금호고속의 차입금 상황이 불투명해졌다. 금호고속의 차입금 상황 여부에 사실상 금호그룹의 존망이 달려있다는 점에서 그룹의 위

기감도 덩달아 깊어지고 있다. 금호그룹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자금 확보 방안으로 대규모 부동산 자산인 터미널 부지·건물을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개발·매각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에서 이미지도 당장 실행 가능성은 미지수다.

13일 채권단인 산업은행에 따르면 지난 11일 산업은행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산 사실을 밝혔다.

정부는 또 이날 오후 산업경쟁력 강화 장관 회의를 열어 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산 이후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심의회는 이어 회의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에 2조4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현안이 지난해 11월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며 시작된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여정이 10개월 만에 '인수 불발'로 끝난 셈이다.

인수 무산으로 아시아나항공은 6년 만에 다시 채권단 관리 체제에 놓인다. 채권단은 일단 기간산업안정기금 투입을 통해 아시아나항공 경영 정상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영구채 8000억원의 주식 전환, 대주주인 금호산업의 아시아나항공 지분(30.79%) 감자 등도 예상된다.

앞서 금호산업은 자사가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 30.77%에 대한 대가로 3230억원을 받기로 돼 있었다. 만약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따라 금호산업의 최대 주주 자격 박탈 이후 감자가 이뤄질 경우 금호산업의 자금압박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지주사인 금호고속은 코로나19 사

태 이후 심각한 경영위기에 몰린 상태에서 금호산업 지분을 담보로 빌린 차입금 상황도 어려운 현실에 놓였다. 금호고속은 금호산업 지분 45%를 담보로 산에서 1300억원을 빌렸고, 이를 갚지 못해 상황을 내년 1월로 연장한 바 있다.

금호고속의 차입금 상황 여부가 사실상 금호그룹의 '존망'이 달려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아시아나항공 매각 불발은 리스크가 크다는 분석이다.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해 자칫 금호산업의 경영권마저 잃으면 그룹의 재건에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

차입금을 갚기 위해서는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해 대금을 확보해야 한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금호고속이 경영위기에 직면하는 등 현금성 자산을 마련하기 어렵고, 아시아나항공과 통매각에 나선던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아시아나 IDT 등을 제외하면 그룹에는 금호산업과 금호고속만 남아 추가 매각할 자산도 없는

상태.

아시아나항공 매각도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계가 위기에 빠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언제 이뤄질지 몰라 금호그룹의 '자금 경색' 현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금호그룹은 목표와 여수 등 터미널 부지와 함께 광주의 '노른자위'라 불리는 유·스퀘어를 개발·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스퀘어가 매물로 나오거나 개발이 이뤄진다고 해도 유·스퀘어가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이라는 점에서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함께, 개발허가를 둘러싼 논란의 여지도 다분해 당장 실현 여부도 불투명하다.

일각에서는 채권단의 '플랜B'에 금호고속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고, 터미널 부지 개발·매각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AI 면접' 인턴 484명 채용 한전KPS

한전KPS가 내부에서는 처음으로 인공지능(AI) 면접으로 채용형 인턴 484명을 채용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전KPS는 지난 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면접전형을 진행하면서 질문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을 인공지능이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 면접은 성과역량, 성장역량, 관찰특성 3개 분야에 걸쳐 이뤄졌다. 면접전형 합격에는 인공지능을 통해 산출된 평가 점수만 반영됐다.

이번에 뽑힌 채용형 인턴은 지난해보다 30% 정도 증가한 484명이다. 채용형 인턴은 정규직 채용이 전제된 것은 아니다.

이들은 오는 16일부터 석 달 동안 한전KPS 전국 사업소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

## 건설근로자공제회 호남·제주권 건설현장 지도

건설근로자공제회 광주지회는 14일부터 25일까지 특별지도 TF팀을 구성해 호남지역 대규모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퇴직공제제도 이행 실태 등을 지도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제회는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 신고누락, 납부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반기 특별지도도 당장부터 운영키로 했다.

앞서 지난 5월 광주·전남 대규모 건축사업장 10개소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해 근로자에게 적법해야 할 퇴직공제부금 5억2000여만원 납부누락을 적발한 바 있다.

공제회는 건설사업장의 건설근로자법 위반사항에 대해 일정 기간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기간 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 위반사항을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백기용 기자 pboxer@

■ 로도복권 (제928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3 4 10 20 28 44	30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3,134,591,358	7
2 5개숫자+보너스숫자일치	45,148,436	81
3 5개 숫자일치	1,385,761	2,639
4 4개 숫자일치	50,000	121,873
5 3개 숫자일치	5,000	2,011,931

## 학교 식당 결제하고 편의점 상품권 받자

### 광주은행, 지역 대학 '학생증 체크카드 이벤트'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광주·전남지역 12개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편의점 상품권 증정과 교내 학생식당 캐시백 이벤트를 벌인다.

광주은행은 14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학생증 체크카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학교는 전남대, 조선대, 조선이

공대, 조선간호대, 동신대, 동강대, 호남대, 광주대, 광주여대, 목포해양대, 호남신학대, 기독간호대 등 12곳이다.

신입생이 광주은행 학생증 체크카드를 신청하고 1만원 이상 결제하면 5000원 상당 GS25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재학생은 올해 3월 이후 학생증 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없었던 경우 1

만원 이상 구매하면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또 학생증 체크카드로 교내 학생식당에서 일일 2500원, 월 3만원 한도로 결제하면 이용금액의 5%를 돌려받는다.

행사 참여는 광주은행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영업점, 고객센터에서 할 수 있다.

김재중 카드사업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는 등 대학 생활의 아쉬움이 큰 요즘, 우리지역 대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 '소상공인 지원금' 제외 업종은?

### 복권가게·약국 제외... 인터넷쇼핑몰 포함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새희망자금' 대상에서 복권판매점과 약국 등 일부 업종이 제외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조 2000억원을 투입하는 새희망자금 지급업종 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정리해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경우 100만 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매출 규모와 감소 기준에 맞는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 지급 때 기존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업종' 분

류를 적용해 지급 제외 대상을 정하기로 했다.

사회 통념상 지원이 곤란한 유흥·도박업종, 변호사와 회계사, 병원 등 전문직종, 고액자산가 등이 포함된 부동산 임대업종 등이 주요 제외 대상이다.

도박, 사행성 관련 업종 중에는 복권판매업, 경마·경륜·경정 잡지 발행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소매업과 임대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판매업, 경주장·동물 경기장 운영업, 성인 오락실·PC방, 전화방 등이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유흥 관련 업종 중에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중개·도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증기탕·안마시술소

등이 지급 제외 대상이다.

전문직종 중에는 약국, 동물병원 등 수익업,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등 법무 관련 서비스업, 관세사 등 통관업, 금융업, 보험·연금업, 감정평가업, 탐정·조사서비스업, 신용조사·추심대행업 등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또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는 제외), 골프장 운영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업 등 고가의 제품·서비스를 다루거나 고액자산가가 포함되는 업종도 지급이 제외된다.

다만 부동산 관리업과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중개업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소규모 부동산 등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다단계 방문판매업과 점점·무당·심령술 등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도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연합뉴스



씨 없는 장성 자옥 포도 드세요 13일 롯데마트 광주월드컵점 직원들이 장에서 생산된 씨 없는 거봉 '자옥 포도'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 4개 롯데마트는 장성 자옥 포도(2kg)를 1만9800원에 판매한다. <롯데쇼핑 제공>

#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 2020년 9월호

8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 연희네 슈퍼

특집

## 가을에 '뉴트로' 하실래요?

문화상품, 카페, 생필품 북고 마케팅 열풍  
90년대 감성 그룹, 레트로 음반 러시  
여기가 레트로 '캠성' 넘치는 곳

기획  
화가 사랑한 정원  
모두의 명소가 되다

문화는 품은 건축물②  
다목적 주민복지시설  
배어난 건축이 입소문  
신안 압해읍종합복지회관

클릭, 문화현장①  
목욕, 주얼리, 도자기 등 체험  
양림 팽귤마을  
공예특화거리

예향이 만난 이 사람  
KIA 타이거즈 마운트 고졸 루키 셋백 정해영

### 예향 초대석

한복 디자이너·전통 복식연구가 김혜순  
"한복 짓기는 자기다음 찾아가는 것"

우리 땅 우리 문화③  
'불법이 머문' 천년 고찰 속리산 법주사

문화 트렌드  
5060 세컨드라이프 '슬기로운 집콕생활'

스포츠 회재  
'가난한 꿈부자' 레슬링영웅 김원기 3주기

김정운의 '바우하우스 이야기'①  
바그너의 '종합예술' 혁명

황인의 '예술가의 한 끼'②  
화가 라익식의 할매공탕

문학자 최진석과 책 읽고 건너가기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프로그래밍 심장을 짝 짜자"  
8월의 책, 생텍쥐페리 '어린왕자'

전시 리뷰  
이강미술관 <2020 Earth & Museum 7차 기획전>전

유연준의 도시건축④  
부동산 정책의 정치학

백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⑤  
세계가 열광, 한류 스타의 어제와 오늘

싸목싸목 남도 한 바퀴⑥  
자년속 가을과 가을  
고서 정경 비연

- 섬진강과 철길 따라서  
- 트릴 토란, 명품 멜론